

규제 넘어선 안전 경영...그린 포트폴리오 구축

포스코건설은 안전 경영을 기업 최고 목표로 잡고 업계 최저 수준의 재해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과 함께 생물다양성, 복지 사각지대 해결 등 이색적인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포스코건설은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설사다. 한성희 사장 취임 이후 포스코건설은 '무재해 인센티브 도입', '사고 재발 협력사 즉각 제재', '근로자 위험 작업 거부권 운영' 등 파격적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이후 업계 최저 수준의 재해 근로자 비율을 자랑하는 포스코건설은 최근 '친환경 아파트'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내세운 포트폴리오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환경ESG>의 2022 ESG 브랜드 조사에서 순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중대재해 근절, 예방부터 시작

올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중대재해법이었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은 작업 도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령이다. 포스코건설은 한성희 사장 취임 이후의 안전 경영 최우선 정책을 유지하며, 더 안전한 현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조직개편을 한 뒤 기존 안전보건 조직을 경영 총괄조직으로 상향해 자체적으로 예산 승인,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 이례적으로 사내 이사직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시키며, 전 사업 부문에 안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세이프티 통합 솔루션

전 분야를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의결권을 부여했다. 안전관리자 고용 확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외부 자문역 선임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포스코건설 안전 경영의 핵심은 '예방'과 '관리'다. 포스코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모든 현장에 도입해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스마트 안전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불량 체결 사실이 통보되며, 이는 안

전교육과 기능 개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설치, 근로자 부주의·실수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페일 세이프 시스템 등 여러 기술이 작업 현장을 지원한다.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 작업 거부권', 불안정한 작업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현장의 위험 작업을 발굴하는 '유해·위험 작업 드러내기' 등 여러 제도 지원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도 듣는다. 포스코건설의 산업재해 근로자 비율은 0.1% 미만으로 안전 경영이 전개된 2018년 이후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함

계 포스코건설도 친환경·친사회 기조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룹이 추진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에도 합류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업인 오스테드와 MOU를 맺고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중장기 탄소감축로드맵인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올해는 스코프 3까지 관리 체계를 확장했다.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녹색성장 이끈다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 건축물 사업 강화 사업 역시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 예는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포스코 그린빌딩', 국내 최초 비주거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다.

포스코건설 주거 브랜드인 더샵 아파트 역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요소를 다수 고려하고 있다. 고객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활동인 '더샵 앤 어스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자사 브랜드 더샵 입주민과 함께 '탄소중립 한달 살기' 캠페인을 실시해 입주민 10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제로 웨이트 챌린지를 진행했다. 올해는 1만 세대 이상으로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이어간다. 포스코건설은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먼지 저감제를 개발해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저

Interview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 국장

“효과적인 ESG 운영 비결은 내재화”



순위 급상승 기업 선정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나.

“포스코는 그룹 차원에서 2018년부터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도입했다. 비즈니스, 사회, 사람 등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 마치 시민처럼 공존·공생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지금의 ESG 개념과도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 시민은 포스코 전체에 녹아든 문화와 같다. 전사에서 공감대를 얻어 문화화된 ESG가 전체 경영 전략 실현의 효용성과 성과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재화 단계 이후 다른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이색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나 선도적 포트폴리오 전환 등의 모습이 효과적으로 노출되면서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

업계 최초로 건설형 ESG 평가모델도 보급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건설업은 공급망 의존 비율이 특히 높은 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사 인크레더블과 협업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건설형 ESG 평가모델을 만들었다. 우수 협력사 47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실사를 진행하며 평가모델을 개발했고, 현재 약 250곳의 협력사를 평가·관리하고 있다. 평가모델이 협력사에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재보다는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모델은 공사 협력사가 주요 평가 대상이었고, 올해는 설비 기자재 부문 업체로 평가지표를 확장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포스코건설의 ESG는 어떤 모습일까.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는 지금의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협력사는 건설사의 매출원가에서 83%가량을 차지하는 큰 기둥이다. 협력사가 없으면 건설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공생관계 확장을 위해 협력사 ESG 평가,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 NGO, 대학교,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확장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의 친환경 건축물에 입주한 소비자까지 지구환경 개선에 함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탄소 시멘트 '포스멘트(PosMent)' 활용도 확장 중이다.

이색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공헌 정책에는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기업 시민 정신이 담겨 있다. 포스코건설은 크게 취약계층 지원, 생물다양성 보존, 미래세대 육성을 키워드로 사회 공헌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업장 청년층 인력을 건설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주변의 환경

변화와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스틸 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 벌 개체 보호를 위해 진행한 도시 양봉과 어린이 꿀벌 축제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민경 포스코건설 ESG섹션 팀장은 “포스코건설은 'Beyond Compliance' 즉 '규제 그 이상'을 ESG 추진의 모토로 삼아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민한 우수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